

## Table of Contents

I. 들어가는 말

II.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 
연구의 필요성

III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 
디아스포라

IV.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 
이용후생문화

V. 나가는말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

상나라가 멸망할 당시(BC 11세기) 기존에 없던 상나라계 청동기가 분포한 요서 지역. 이는 상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상나라의 주요 세력이 중원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했음을 뜻한다

중국 국무원에서 2009년 출간한 권위 있는 역사서 《중국역사상식》에 그려진 동이와 화하의 영토.

출처 : 2015년 월간조선 .

<http://m.monthly.chosun.com/client/news/viw.asp?nNewsNumb=201510100028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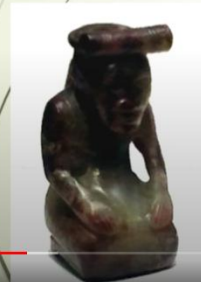
- ⊙ 동이족이 동아시아 문자(한자), 음악, 종교, 예절, 청동기 문화 창조
- ⊙ 주나라에 망한 상나라(은나라) 유민들, 선조들의 땅인 조선으로 대이동
- ⊙ 한반도 토착 동이 세력인 왜, 한반도 대혼란 피해 일본으로 이주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

● 상나라와 부여의 시조가 모두 새의 알에서 태어남

● 두 무릎을 꿇어 겸손을 표현함. 이는 화화족과 다른 동이족의 특징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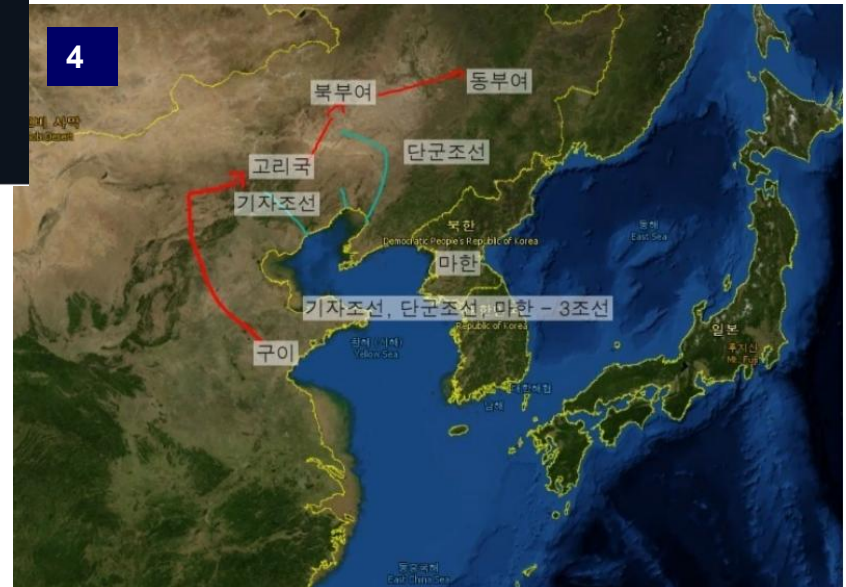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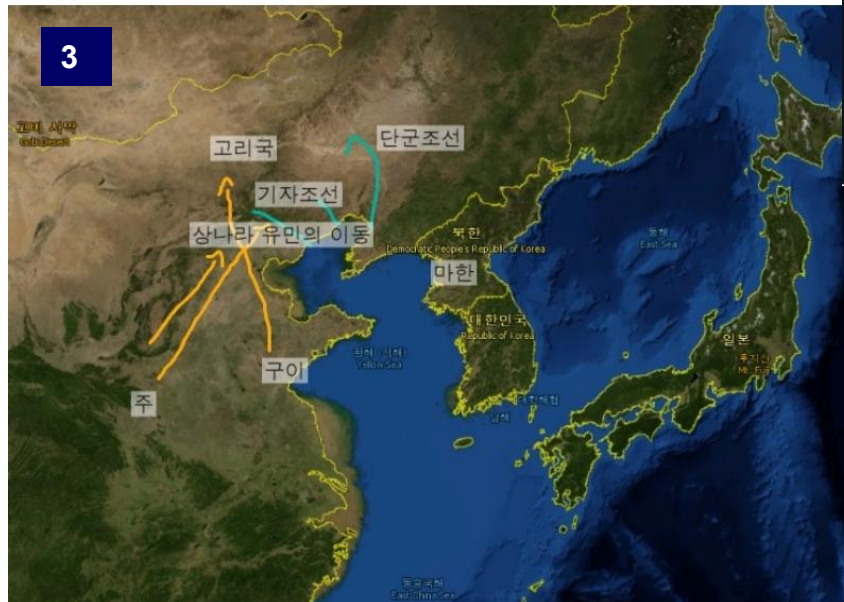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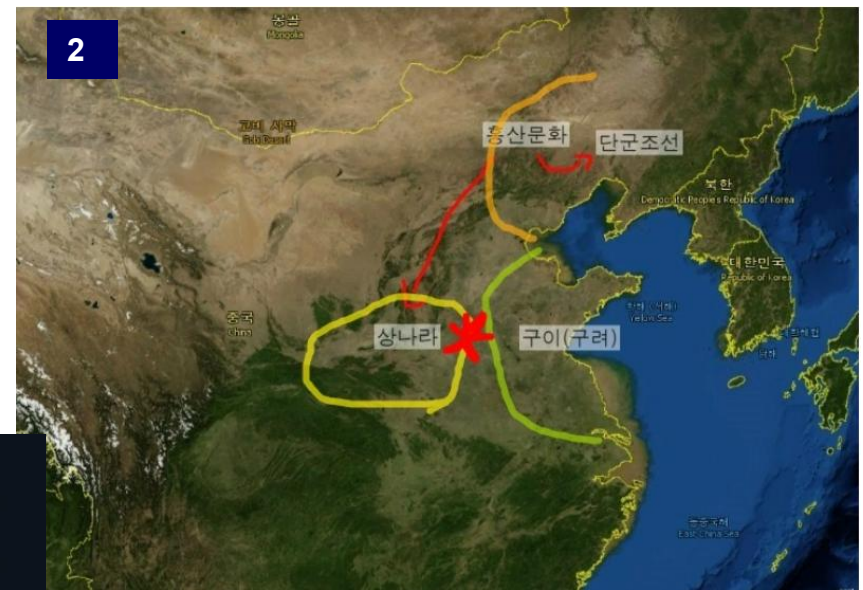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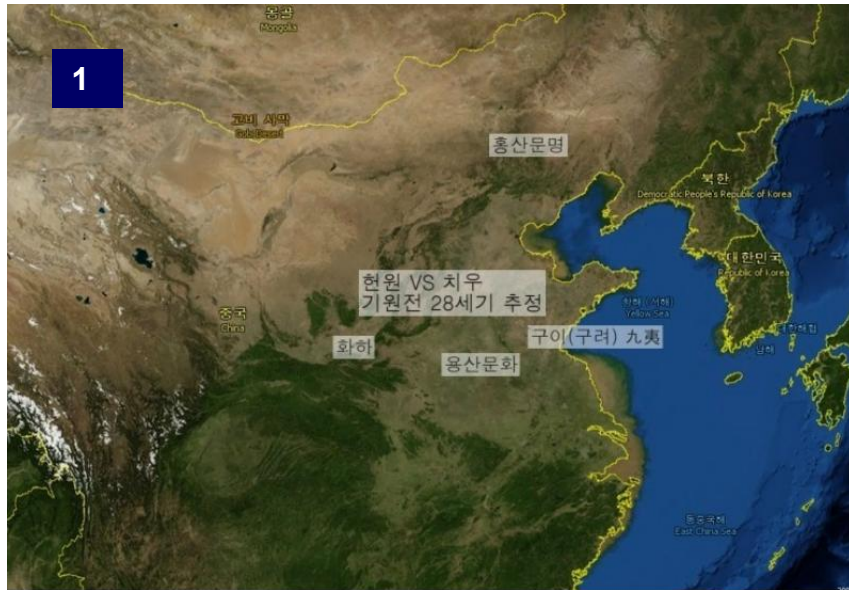
무릎 꿇고 앉은 상나라 신하(BC12세기)(중국 인위박물관).

cnara.net

이는 부여의 국호가 공식적으로는 '예'였음을 말합니다.  
예(濊)는 중국어로 '휘(Hui)'이며 이 '휘'는 왜(일본)의 원 국호인 '위(委, 倭)'와 상통합니다.

즉, 상나라(위), 부여(휘), 일본(위)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부르던 호칭이 같았다는 말입니다.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

동이  
한국사  
시대  
동

그림 출처 :  
<https://m.blog.naver.com/aaaa123krkr/220174812133>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李德山과 같은 이  
는 기자조선으로 인해 조선이란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보았다(【李德山, 2002】)  
李德山の 경우 1996년에 출간된  
東北古民族與東夷淵源關係考論 (長春：  
東北師大)이란 책에서는箕子朝鮮이전에 이미 朝鮮이란 실체가 있었고,  
그 古朝鮮族의 시조가檀君임을 주장했다.

고고학적인 근거, 풍속학적인 근거를 통해 東夷이주설을 가장  
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연구자는 李德山이다. 그는 東夷를 華夏族에 대  
해 동방에 거주하던 민족의 專稱으로 보아, 東夷가 그들이 말하는 漢  
族과는 별개의 집단임을 인정하고는 있다. 그러나 그는 요동 東夷를  
山東의 東夷가 이주한 것으로 보고, 양자를 동일 문화의 다른 단계로  
본다

중국학계의 고만족 인식과 동북 연구의 새로운 경향 ◇ 홍승현 39

李德山, 高句麗族稱及其族屬考辨( 社會科學戰線 1992-1, 1992); 試  
論研究  
東北古民族起源的方法( 東北師大學報 1994-5, 哲社版, 1994);  
東北古民族源於東夷論( 東北師大學報 1995-4, 哲社版, 1995);  
東北古民族與東夷淵源關係考論 (長春: 東北師大, 1996); 貊族的  
族源及其發展演變( 社會科學戰線 1998-1, 1998); 關於古朝鮮  
幾個問題的研究( 中國邊疆史地研究 12-2, 2002).

### III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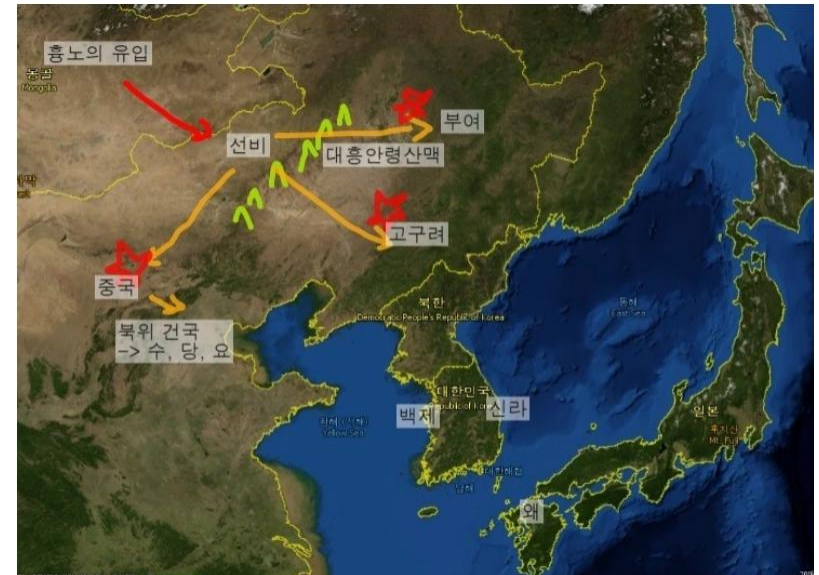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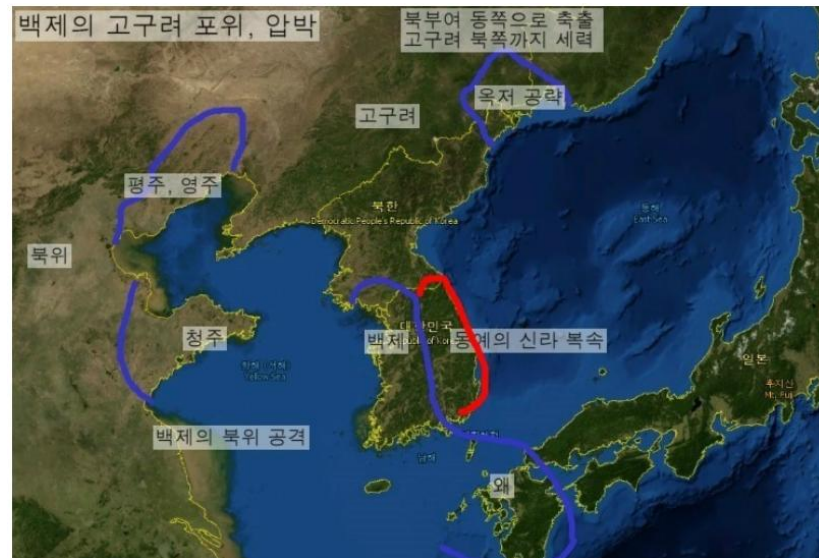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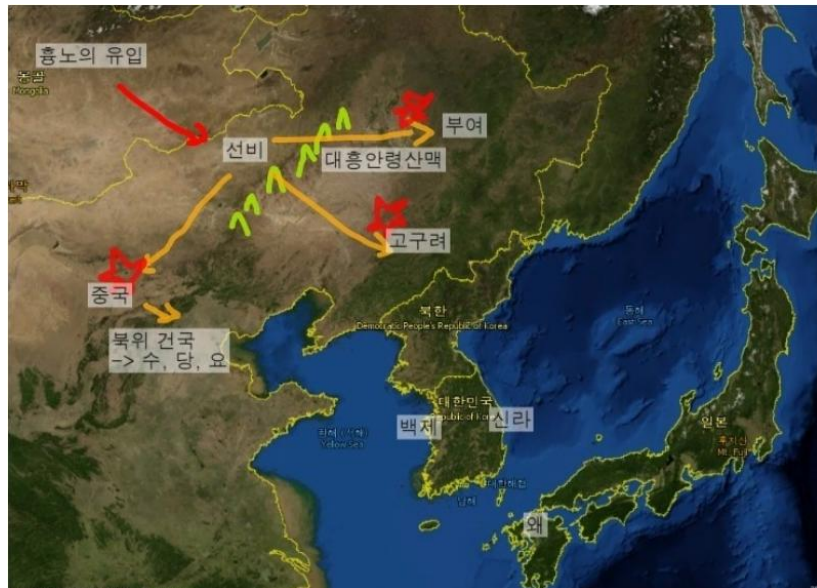


그림 출처 :  
<https://m.blog.naver.com/aaaa123krkr/220174812133>



### III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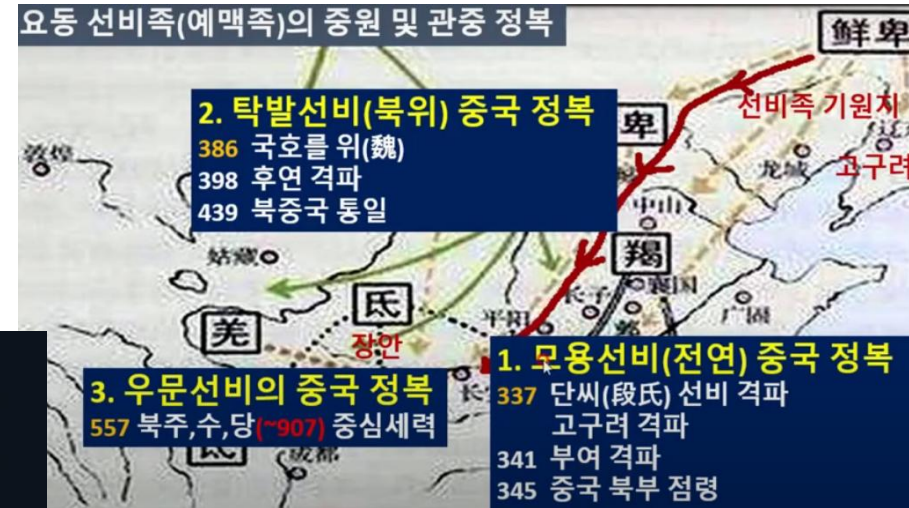


그림 출처 :  
<https://m.blog.naver.com/aaaa123krkr/220174812133>

### III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

濊(예)의 음은 예, 외, 웨로,  
倭(왜)와 같은 음(jwar)

濊(예)를 倭(왜)로 바꾸어 적은데  
지나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.



故 유창균 박사  
미국 프린스턴 대학교가 인정한  
'한자 음운학 세계 최고 학자'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역주삼국사기1 교감원문 편

삼국사기-신라본기 제4권 법흥왕, 역주 신라

法興王立, 諱原宗 『冊府元龜, 姓募名泰, 泰, 遺事王曆作秦』, 智證王元子, 母延帝夫人, 妃朴氏 保刀夫人)

책부원구란 옛 책에는 성은募(모), 이름은泰(태)라 했는데, 태는 삼국유사 王曆(왕력)에는 秦(진)이라 돼 있다』

지증왕의 원자로서 어머니는 연제부인이요, 왕비는 박씨, 보도부인이다

《남사(南史)》. 《통지(通志)》. 《태평어람(太平御覽)》 등에서는 모두 성이 '모(慕)'요 이름은 '진(秦)'이라 썼고, 《통고(通考)》에서는 《양사(梁史)》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역시 똑 같다.

<https://www.stb.co.kr/?m=bbs&bid=stbfree&p=79&uid=1417>

근초고왕이 전연을 멸망시켰다 / 백제의 영토

<https://blog.daum.net/ds3goj/15847660>

역사에 누락된 정복군주 근초고왕의 실상(2)

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한평양성 전투의 내막

[https://www.skyedaily.com/news/news\\_spot.html?ID=97867](https://www.skyedaily.com/news/news_spot.html?ID=97867)

<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isHttpsRedirect=true&blogId=suts005&logNo=221222553951>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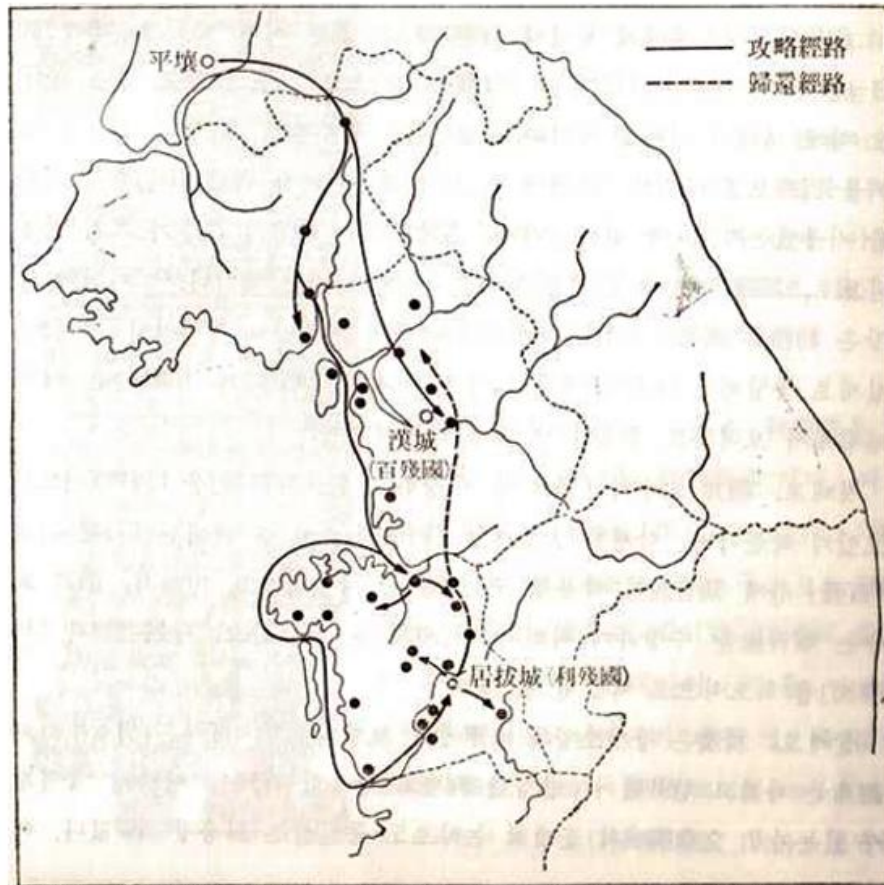
“요동의 장통(위나라시기 관리)은 낙랑, 대방 두 군을 다스렸는데, 고구려왕 을불리(미천왕)와 서로 해마다 다투었다. 낙랑의 왕준은 그 백성 1,000여 가를 이끌고 모용씨에 투항하여 낙랑군을 (요서에) 세운다. 이로써 태수가 되어 군사에 참여한다.” 《자치통감》

이 낙랑을 흡수한 요서의 선비족 모용씨는 이후 전연(337~370)을 세워 중원을 정복하고, 5세기 중엽(453)부터는 한반도에서 신라, 백제, 왜를 장악하는 역사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른다.(이전 강의 ‘황룡국이 된 신라’ 참조)

이에 비해 백제와 고구려는 시종 자신들이 ‘부여’의 후예임을 강조하여 선비계 사람들과 구분하고 있다. 백제는 비록 5세기 말 선비계 모씨 왕들에 의해 왕권을 빼앗겼지만, 6세기 초 무령왕(여유)은 모씨 성을 쓰지 않고 부여씨 또는 줄여서 여씨를 성을 썼으며,

신라는 부여계 국가인 고구려를 치기 위해 중국을 통일한 선비계 나라인 수나라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걸 사표를 짓게 되는데(608년), 수나라의 양제는 그것을 받아들여(611년) 결국 고구려를 공격한다(612년~614년).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

▲ 김성호 박사의 책에 그려진 리잔국(비류백제)의 도읍 거발성(웅진) [이미지=필자제공]

그림 출처: 김성호 :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

스카이데일리

:[https://www.skyedaily.com/news/news\\_spot.html?ID=40605](https://www.skyedaily.com/news/news_spot.html?ID=4060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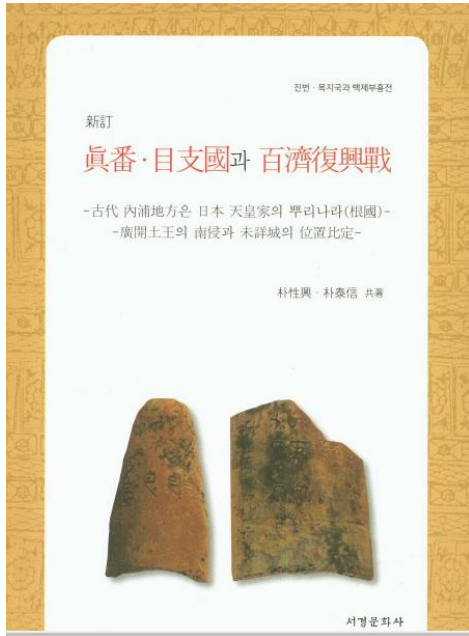
■ 당진은 당나라와 가는 길일 뿐 아니라 일본과도 가는 삼거리였다

■ 임존성과 비류백제 거발성은 같은 곳이었다

■ 비류백제설 비판

[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isH  
ttpsRedirect=true&blogId=man1120&logNo=2  
20147987321](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isHttpsRedirect=true&blogId=man1120&logNo=220147987321)

### III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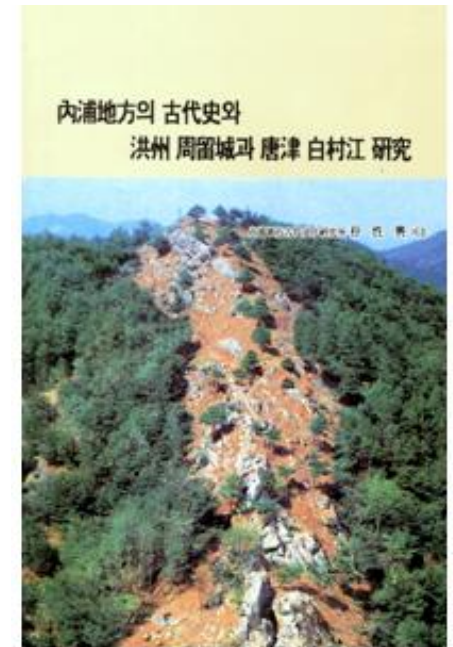
■ 2천 년 전 진번국의 도읍지에  
지금의 충남도청이 들어섰다  
<https://hongjuin.news/304>

임둔 · 진번군의 치폐와 위치에  
관한 재논의  
삼교천의 어원과 진번군 삼현의  
치소 134



■ 2019년 10월  
사)내포지방고대문화연구원, 장곡산성 주류성 정설로 확정  
목표

출처 : 내포뉴스(<http://www.naeponews.co.kr>)  
<https://hongjuin.news/304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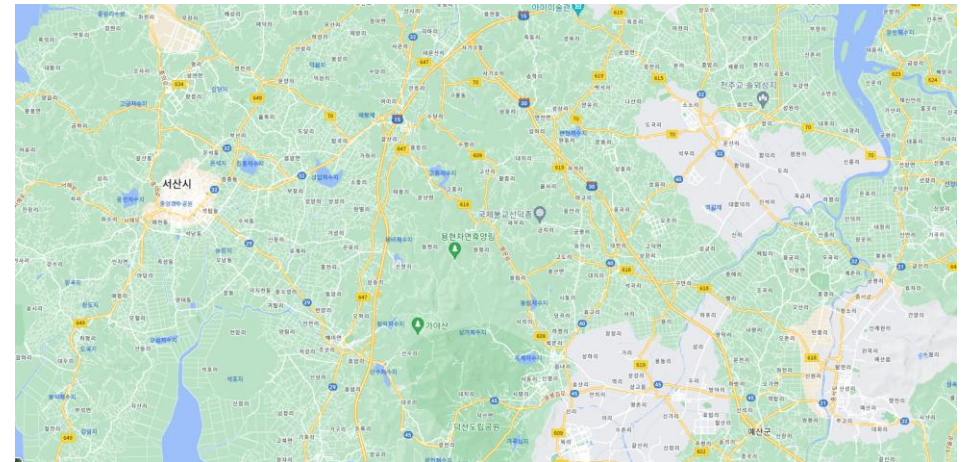
■ 2004년  
박성홍 옹 '홍주주류성'설  
집대성  
충남시사신문

당진은 진번국, 목지국이자  
임나가야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1

당진 가야산



가야봉 정상에서 바라본 석문봉(왼쪽)과 옥양봉(오른쪽).

<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1127165448380>

가야산- 불교 본산지인가 가야-코끼리 : 하나라때 홍산문화때  
코끼리 한국에도 있었다

### Ⅲ . 백촌강 전투 이전의 기억과 당진

통사에서 진번군의 문제가 공백이어서 공백으로 놓아둘 수 없어 이병도 박사의 학설을 택한다는 이현종 박사의 주장에 의해 내포지방의 고대사에서 내포지방이 진번과 목지국의 고토일 수 있다”는 가설을 제기하며 ‘내포지방의 고대사’와 ‘홍주주류성’ 학설을 설파하고 있다.

주류성에 대해서는 90년 전 일본 와세다 대학 쓰다 교수가 한산설을 주장

10년이 지난 80년 전엔 조선총독부 역사편수관이던 일본학자가 부안설을 주장했다. 그후

다시 10년이 지나 경성제국대학 일본 교수는 부안설을,

우리나라 역사학자 이병도 씨는 한산설을 지지한 바 있다.

15년 전 쯤 연기군 향토사학자 김재봉씨가 신채호의 연기설을 주장하고

박성흥 씨가 김정호의 ‘대동지지’에 “홍주에 주류성이 있다”는 구절을 발견하고 홍성군 일대를 5차례 답사한 끝에 장곡면 산성리 일대 산성(학성, 석성산성)을 주류성이라고 주장하며 홍주설(장곡설)이 제기됐다.

<http://www.chungnamsisa.com/detail.php?number=9177&thread=18>

서영교 대청일통지에 보이는 백강 주류성의 위치 : 웅진강 ?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1

변광현

변광현-한종섭 이론 : 또 하나의 백제 연구가- 한종섭 책들 : 위례성 백제

과거불-선돌-미륵

왜 솔위에 미륵을 세웠는가 부분 : 김필재 동영상 : 고인돌 : 외국학자  
가야산- 불교 본산지인가 가야-코끼리 : 하나라때 홍산문화때 코끼리 한국에도 있었다

2

한종섭

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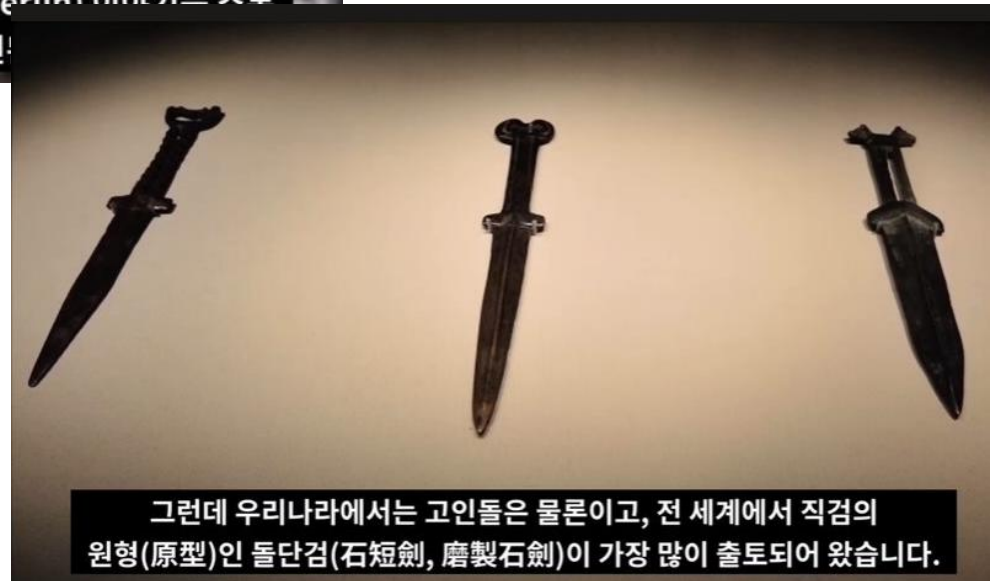


불멸의 안식처 강화 고인돌과  
쌍둥이처럼 닮은 아일랜드 고인돌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

영국 최고의 전설인 아서(Arthur) 왕과 마법사 멀린(Merlin) 이야기는 스톤헨지(Stonehenge)와 고인돌(Dolmen)과 관련!



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은 물론이고, 전 세계에서 직검의 원형(原型)인 돌단검(石短劍, 磨製石劍)이 가장 많이 출토되어 왔습니다.

### Ⅲ.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

법화경과 신약성서  
해당 페이지

보살의 기원은 한국



천수천안 관세음보살

<https://m.cafe.daum.net/santam/IZ0A/421?listURI=%2Fsantam%2FIZ0A>

이미우이(黃慧音)의 관세음보살탄생이야기

<https://blog.daum.net/bolee591/16157017>